

공무국외여행보고서

I. 출장개요

- 목적
 - 제7회 호주한국영화제 및 캔버라, 뉴캐슬 등 호주 3개 도시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 진행
 -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 공연팀(12명) 인솔
 - 호주 국립영상음향기록보관소 참관 및 업무교류 협의
 - 2017년 프로그램 교류 협의
- 기 간 : 2016년 8월 9일(화) ~ 15일(월)(5박7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호주(시드니, 캔버라, 뉴캐슬), 주시드니한국문화원, 호주 국립영상음향기록보관소
- 주 관 : 주시드니한국문화원, 한국영상자료원
- 여행자 인적사항 : 류재림(원장), 모은영, 허윤석(시네마테크부 영화관운영팀)

II. 출장개요

- 주요 활동 내용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

- 1차 행사
 - 일시 : 2016.8.11.(목) 19:00-21:30
 - 장소 : 시드니 이벤트 시네마(400석 규모)
 - 개요 : 제7회 호주한국영화제 시드니 세션(8.10- 8.18) 특별프로그램
 - 주요 참석자 : VIP 초청객, 영화제 유료관람객, 호주 현지 동포, 영화 전공자 등 약 400여명
 - 주요활동: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 전 원장 축하, 변사상영, 상영 후 제작진 Q&A 진행
 - 결과 : 동아시아 지역의 교유한 무성영화 상영방식인 변사를 4인조 현대음악, 배우들의 실연과 결합한 독특한 형식이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상영 후 있었던 제작진 Q&A에서는 특히 변사 형식과 공연으로의 재창조 과정에 대한 호주 영화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음. 또한, 영화의 배경이 된 ‘1930년대 경성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을 현지 공연 대행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유, 상영 전 사탕, 공연 정보 공지 등 국내 공연에서도 높은 효과를 거뒀던 ‘바람잡

이'를 활용, 현지 관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음

- 2차 행사

- 일시 : 2016.8.12(금) 18:30-21:00
- 장소 : 캔버라 펠리스 일렉트릭 시네마(200석 규모)
- 주요 참석자: 성문업 공사 겸 총영사, Lyndall Sachs 호주 외교부 의전장, Paula Watt 외교부 MIKTA 담당과장, Natalie Howson 캔버라 주 정부 교육훈련국장, Helena Zorko 슬로베니아 대사 등 호주 정부, 각계 인사,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및 EU국가 외교단 다수 참석
- 주요 활동: 식전 리셉션,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 전 원장 인사, 변사상영 참석, 상영 후 제작진 및 초청인사 인사
- 결과: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의 특별 초청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공연 후 초청자들로부터 '무성영화를 공연과 결합한 아이디어가 신선했으며 전체적으로 즐겁고 흥미로웠다'는 평가를 받음. 공연 후에는 변사를 맡은 조희봉 배우 등 제작진과 초청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높은 호응을 얻었음

- 3차 행사

- 일시 : 2016.8.13.(토) 15:00-16:30
- 장소 : 뉴캐슬 시청, 헌터 룸 (150석 규모)
- 주요 참석자 : Jason Dunn 뉴캐슬시 부시장, 오세옥 뉴캐슬한글학교 교장, 한국인 입양인 및 가족 등 150여명 참석
- 주요 활용 :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 전 인사, 변사상영 참석, 상영 후 현지 관객과의 만남
- 결과 : 뉴캐슬한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 뉴캐슬은 호주 내에서도 한국인 입양아가 많은 지역으로 한국인 입양인 및 가족, 한국-호주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 한국의 무성영화를 새롭게 재창조한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을 선보였으며,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과 놀이, 떡거리 등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음. 또한 이번 공연은 한국 공연팀이 뉴캐슬을 방문해 가진 첫 번째 공연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관련 기관 및 전시 참관>

일시	방문 기관	내역
8.11(목)	시드니 호주현대미술관	-시드니 시내의 최고 핫 플레이스인 록스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주

	(Museum of Contemporary Art Australia)	제와 소재의 현대미술 전시 진행 -한국 국립현대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호주국제교류전 <뉴 로맨스: 예술과 포스트휴먼>전 참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화제작 <축지법과 비행술>(문경원, 전준호) 등 한국, 호주 작가 참여 작품 전시 -입장은 무료이나 이용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 시설을 무료로 운영 중인 자료원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8.12(금)	호주 국립영상음향기록보관소(National film & Sound office Archive)	-1984년 발족 이후 초기부터 현재까지 호주의 모든 영화, 텔레비전 제작물, 사진, 포스터 녹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캔버라의 호주 국립영상음향기록보관소 견학 -2018년까지 ‘만인을 위한 살아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에디슨 시대의 축음기 음원부터 LP 등 다양한 아날로그 음원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필름의 수집, 보존, 복원, 상영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체 보유작의 20% 정도의 디지털화가 진행 중 -1900년대 초 동물원으로 설계된 건물의 정체성을 살려 라이브러리, 상영, 오래된 건물에 살고 있는 유령을 테마로 한 ‘유령투어’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달 1회 운영하는 유령투어는 70호주 달러의 고가임에도 오픈 즉시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음) -로비에 설치된 소규모 전시실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호주영화인 <샤인>의 개봉 20주년을 맞아 주연배우의 의상 및 시나리오 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음악감독을 초청 주제곡 연주상영 등의 특별상영도 진행 -현 호주 아카이브 보유 중인 한국 기록영상 수집, 복제 사업이 논의 중인 바, 향후 실무자 차원에서 업무 진행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 독려

<간담회 진행>

일시	장소	내역
8.10(수)	주시드니대한민국 총영사관저	-시드니에 위치한 대한민국총영사관저 오찬 참석 -호주한국영화제 개막작인 <4등>의 정지우 감독, 이항나 배우를 비롯한 <청춘의 십자로> 변사 상영 의 조희봉 배우, 조휘 배우 등 영화인 참석 -고전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영화를 통한 호주 내 문화한류 확산 및 영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지우 감독 등 영화인 기증 등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 협의
8.11(목)	한국문화원	-호주의 대표적인 영화평론가이며 7~80년대 한국 영화 전문가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인 에드 워드 러셀과의 만남 진행 -<청춘의 십자로> 및 변사공연 리뷰 작성을 위한 필름 발굴부터 공연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 -향후 호주 내 한국 고전영화의 지속적인 소개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의 기회를 갖기로 함
8.14(일)	한국문화원	-시드니, 캔버라, 뉴캐슬 등 <청춘의 십자로> 변 사상영의 호주 3개 도시 순회 공연에 따른 성과 공유 -단 기간 내 3개의 도시를 이동하며 각각 다른 장 소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촉박한 일정에서 이루어 졌지만, 자료원은 기획 및 연주팀 관련 일체 업무 및 예산(섭외, 항공료 및 초청비), 문화원은 3개 처 공동주최 기관 섭외 및 장소 대관, 약기 대여, 공연 진행 등 현지 실무 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방 식으로 3차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수행, 공동주 최 기관 간 업무분담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향후에도 한국 고전영화를 새롭게 재창조한 유사 한 공연 및 기획, 고전영화를 호주한국영화제에서 의 지속적인 소개를 통해 호주에 한국영화의 다양 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 기로 함
8.14(일)	호주한국영화제 및 인근 중식당	-시드니, 캔버라, 뉴캐슬에 이르는 ‘<청춘의 십자 로> 변사상영’ 호주 순회공연(3회)의 성공적인 완 수를 따른 공연팀 독려 및 평가 간담회 진행

		-향후 한국 고전영화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당 공연의 지속적인 지원 및 확대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2018년 10주년 기념 공연 등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방안을 고심기로 함
--	--	--

<영화제 참관>

일시	상영작	내역
8.10(수) 18:00	4등 (정지우, 2016)	-호주한국영화제 개막작. <사랑니> <은교> 등을 만든 정지우 감독의 신작으로 상반기 한국영화 중 우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
8.10(수) 21:00	개막식 리셉션	-호주한국영화제 개막식 참석 및 개막작 참관 후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리셉션 참가. -현지 영화관계자와 교류 및 개막작 <4등> 제작진 Q&A 참관
8.14(일) 14:45	암살 (최동훈, 2015)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2015년 최고 화제작 이자 흥행작 참관. 한국 역사를 담은 작품 및 한국영화에 대한 호주 현지 관객들의 실제 반응 확인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이자 무성영화를 전통적 상영 방식인 변사와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영상복합공연으로 재탄생시킨 <청춘의 십자로> 변사공연을 제7회 호주한국영화제 특별 프로그램 및 캔버라, 뉴캐슬 등 호주 내 3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하여 약 750명이 관람함. 특히 지역별로 영화제 관객 및 호주 거주 한국동포, 외교관 및 공무원, 한국인 입양아 및 입양 부모 등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주 관객층을 세분화하여 진행하여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모았음

- <청춘의 십자로> 변사상영은 영화 상영과 함께 변사, 4인조 밴드의 라이브 연주, 배우들의 실연(實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동시에 시연되는 복합 문화공연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한국 영상문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영상자료원이 발굴, 복원한 한국 고전영화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고전영화의 우수성 및 영상자료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음
- 이와 함께,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국립아카이브인 국립영상음향보관소(National film & Sound office Archive)를 방문, 영상 이미지와 함께 음향자료 역시 체계적으로 수집, 복원, 보존, 활용하고 있는 선진 아카이브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한국 주제 기록영상 수집, 교류 등의 협업 사업 등을 논의함으로써 아카이브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했음

붙임: 1. 일정별 주요 업무 1부
 2. 사진자료 1부
 3. <청춘의 십자로> 홍보자료 1부. 끝.